

일주문

지구촌공생회 몽골 지원 사업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은 9월 2~6일 몽골 울란바토르 드림센터 등을 방문해 주몽골한국대사와 몽골지원 사업을 논의했다.

마곡사 간화선 집중 수행
공주 마곡사 주지 원해 스님은 10월 1~7일 마곡사 경내에서 간화선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동화사 사리건전대법회
대구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10월 30일까지 통일대불전에서 부처님 치아 사리 2과 건전법회를 개최한다.

청량사 산사음악회
봉화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은 10월 8일 경내에서 2011 청량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통도사 개산대재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10월 5일 경내 설법전에서 제1366주년 개산 문화대재를 개최한다.

금산사 전복연합법회
김제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은 9월 1일 전복불교회관에서 전복선행단체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합법회를 개최했다.

송광사 제7회 금강산림대법회
순천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10월 14일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의 범문을 시작으로 12월 2일까지 제7회 금강산림대법회를 개최한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 2011 자비사랑 호프
일산노인종합복지관 관장 능인 스님은 9월 30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2011 자비사랑 일일 호프를 개최한다. (02)2260-3026

<인사> 신현택 예일법인 고문, 동국대 석좌교수

동국대(총장 김희욱)는 신현택 예일회계법인 고문을 2011년 가을 학기부터 문화예술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했다. 신현택 석좌교수는 1952년생으로 여성가족부 차관을 비롯해 예술의 전당 사장 과 전국문화예술평의회장, 코리아스포츠 이사장, 금호문화재단 이사 등을 지냈다.

아이패드는 가장 저렴한 포교

경북 청암사 주지 상덕 스님, “불교 콘텐츠가 한국 불교 세계로”

경북 청암사 학인스님들이 아이패드를 이용해 태극선을 찍어 어플에 올렸다. 그런데 게시한지 하루 만에 독일에서 연락이 왔다. 어플에 사용한 ‘시크릿가든’ 음악 저작권 때문이었다. 청암사 주지 상덕 스님은 “우리가 만든 동영상은 전 세계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해준 놀라운 경험이었다. 우리가 만드는 불교 콘텐츠가 바로 한국 불교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아이패드II는 학인스님 각자가 구입해 통신비처럼 매달 3~4만 원씩 내고 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전 세계에 한국 불교를 알리기에는 가장 저렴한 포교”라고 설명했다. 평소 승가 교육개편의 필요성을 절감하던 상덕 스님은 전북대학교원 전자상거래학과 이백규 겸임교수를 만났다. 이 교수의 ‘E-비즈니스 미래’를 말한다’ 특강을 청해 듣고는 스마트



기기를 통해 무한한 세상을 만날 수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스님은 2011년 1월 이 교수에게 “이 곳을 ‘스마트캠퍼스’로 한번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스님은 “아이패드를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같은 거라고 생각했지 청암사에서 활용 한다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다. 청암사는 3년 전, 홈페이지를 직접 관리하기 위해 학인스님 4명으로 구성된 영상 팀을 만들고 전문 영상 장비를 구입했다. 영상팀은 강의를 녹화해 두고 학습 자료들을 DB로 구축해왔다. 이런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청암사는 8개월 만에 ‘청암사 스마트 캠퍼스’ 어플을 개발할 수 있었다. 상덕 스님은 동영상 콘텐츠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인스님들은 아이패드의 기능을 십분 활용 할 줄 안다. 학인스님들이 각자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가족도 등장하고 서울도

낙태 한 이 모두 참회를

국내 최초 낙태영가 추모도량 ‘구담사’ 추모공원 개원

국내 최초로 낙태 영가의 원경을 풀고 그 부모들의 참회와 기도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추모도량이 마련됐다. 구담사(주지 지윤)는 9월 4일 남양주시 진전읍 부평리에 새 도량을 마련하고 이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구담사 이전법회는 낙태영가 천도재와 추모참회공원의 각 보살상 점안법회가 함께 진행됐으며 남양주 봉선사 회주 밀운 스님이 천도법문했다. 20여 년 간 태아 영가 천도재와 한 생명살리기 운동을 펴고 있는 지윤 스님은 이날 “낙태된 태아도 한 생명으로 그 악업을 참회하고 원경을 풀어줘야 한다”며 “그 무엇보다 참회를 통해

산 사람들의 선연이 이어 지기를 기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의미에서 지윤 스님은 매년 참회기도 시 읊려진 아기 옷과 분유, 기저귀 등 생필품을 모아 미혼모 복지시설과 장애아가정에 보내고 있다. 스님은 “태아영가 추모, 참회와 함께 낙태의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도량에 추모공원을 조성하게 됐다”며 생명살리기 운동에도 더욱 적극 나설 것을 밝혔다. 이날 법회에서 밀운 스님도 천도법문을 통해 “모든 것은 그 근원이 동일하며 인연법에 따라 형태만 달라질 뿐”이라며 “낙태 참회를 통해 생명의 존귀함을 깨닫고 수행정진으로 선업을 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담사 태아영가천도재 3제는 9월 25일, 5제는 10월 9일, 7제는 10월 23일 열린다. (031)529-2855 노덕현 기자



구담사 참회공원 전경.

이곳은 열려있는 산골입니다

청암사 승가대학장 지형 스님, “황토·창호지가 전자파 막아요”

승가대학은 위계질서가 엄격하다. 학인스님들은 선배스님 만큼이나 학장스님도 어렵다. 경내 모든 공간에 ‘카카오톡’과 ‘이메일’ 등 SNS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좀 더 편한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 청암사 승가대학 학장 지형 스님은 “수업자료를 다시 보내 줄 수 있는 학인스님의 이메일도 받아봤다”며 “나와 학인스님을 비롯해 학인스님들 간에도 소통이 활성화되는 등 스마트 캠퍼스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고 말했다. 청암사는 전통 강원 가운데 발 빠른 계 시대의 요구에 대응했다. 그래서 인근 구미대 사회복지학과에 동시에 진학한 청암사 승가대학의 학인스님이 많다. 불교계 사회복지사가 절실한 가운데 청암사는 학인스님들이 사회 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형 스님은 여름에 아이패드 때문에 재밌는 구경을 했다. 학인스님들이 경내 이곳저곳으로 와이파이가 잘 터지



는 곳을 찾아다니는 모습이 아주 귀여워 보였기 때문이다. 스님은 “각각 다른 요금제를 사용하는데 보통 무선인터넷이 되는 공간에서는 무료이고 3G로 사용되는 공간은 유료인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경내 무선인터넷 설치해 김천 KT가 담당했다. 보통은 큰 빌딩도 하나만 설치하면 된다는 것을 경내에는 거의 방마다 하나씩 설치했다. 황토와 창호지가 전자파의 흐름을 막아 벽하나 차이로 신호가 잡히지 않아서였다. 스님은 “황토나 창호지가 전자파를 차단하는 줄 모르고 여태 살았다”며 “너무 좋은 곳에 살아 어려움도 많았다”며 웃었다. 교계 최초로 ‘스마트캠퍼스’를 구축하다보니 버텨 하나하나에 무슨 단어를 사용할지 등 고민해야 할 것이 한 둘이 아니었다. 스님은 “청암사 스마트캠퍼스’ 어플이 표본이 될 텐데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만들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천진영 기자

고판화 아카이브 구축

고판화학회 창립하는 한선학 스님

한국의 고판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술단체인 한국고판화학회가 9월 17일 강원 원주시 고판화박물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한다. 한국고판화학회 창립준비위원장인 한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은 7일 “고판화는 판을 활용해 그림을 새기고 또 찍어낸 각종 기술이 집약체”라며 “서지학, 인쇄학, 고고미술학, 불교학 등 관련 기관들과 학자들이 정보를 교류하면서 자료를 발굴하고 국내외 답사, 국제교류를 통해 아시아 고판화 아카이브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판화학회에는 미술사, 서지학, 불교학, 박물관학 등 각 분야 학자들과 해인사 성보박물관,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청주 고인쇄박물관, 안동

유교문화박물관, 고려대장경연구소 등의 주요인사들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창립총회에서는 남권희 경북대 교수가 ‘고인쇄 연구의 현재와 미래’, 박도환 동국대 교수가 ‘고판화 연구와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과 경북 안동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 목판연구소의 목판 답사가 1박2일간 이뤄진다. 한선학 스님은 “고판화의 80% 이상이 불교문화재인 만큼 불교문화 연구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교문화콘텐츠 확보 및 창달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제 40차 운문승가대학 동문회

어느 덧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 가는 운문사 은행나무가 선후배 스님들을 초대합니다. 동문스님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동문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정진 중 바쁘시더라도 운문사 모든 선후배 스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시오.

▶ 아 래 ◀

일 시 | 불기2555(2011)년 9월 17일(음력 8월 20일) 오후 2시

장 소 | 운문사 선열당

안 건 | 동문회 임원선출에 대한 건, 모교 발전에 대한 건, 기타

문의전화 | 054)372-8800 (운문사 중무소) / 010-3045-4660 (동문회장) / 010-9467-1596 (동문회재무)

운문승가대학 총동문회장 행법 합장